

전방십자인대의 이중 다발을 이용한 해부학적 재건술 및 단일 다발 재건술의 1년 추시 비교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서울백병원 정형외과학교실

이 강 · 김영재 · 김진구

목 적

전방십자인대의 전내측 및 후외측 다발을 재건하는 이중 다발 재건술은, 기존의 단일 다발을 이용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시행 후 교정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진 회전 불안정까지 고려한, 해부학적으로 우수한 수술 기법으로 소개되었다. 그러나 수술 결과가 실험적인 단계에서만 검증된 기법로서, 본 연구에서 실제 술 후 기존의 단일 다발 재건술과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2006년 3월부터 2007년 3월까지 본원에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한 35명(이중다발을 이용한 해부학적 재건술 15명, 단일동중이식다발 재건술 2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수술 시행 1년이 되었을 때, 금속 제거술을 시행하면서 2차 관절경 검사를 시행하여 재건된 전방십자인대의 상태를 확인하였다. 전후방 불안정성은 KT-2000 arthrometer를 사용하였으며, 회전 불안정은 마취된 상태에서 Pivot shift 검사를 시행하였다. 이외에 IKDC, Lysholm 주관적 검사, Tegner activity score를 시행하였고, Biodex를 이용한 근력 검사를 시행하였다.

결 과

각 수술 기법을 술 후 1년째에 비교한 결과, KT-2000을 이용한 전후방 불안정성, Pivot shift 검사를 통한 회전 불안정성, 그리고 근력에서는 특이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IKDC subjective score, Tegner activity score 및 이차 관절경 추시 상 이중다발을 이용한 해부학적 재건술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05$). 하지만 관절경 추시 상 이중 다발의 경우 전내측은 교정이 양호 하였으나, 후외측은 부분 파열이 3례 관찰 되었다.

결 론

본원에서 시행한 단일 다발을 이용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이용하여 충분히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으나, 운동 선수와 같이 환자의 활동에 대한 요구도가 매우 높고, 술자가 이중다발 재건술 시행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이중다발을 이용한 해부학적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통하여 보다 우수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다. 하지만 후외측 다발의 문제로 인한 장기 추시가 앞으로 필요하리라고 생각된다.

색인 단어: 전방십자인대, 이중 다발 재건술, 단일 다발 재건술